

UCL 첫 골... 찬사 쏟아진 '철벽'

김민재, 이강인 PSG전 결승골 팀 7경기 무실점 행진 일등공신 뛰어난 위치 선정...수비완벽부활 "금 머리와 팬 분노로 이룬 승리"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독일 언론의 '역짜' (역지로 비판함)를 찬사로 바꿨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김민재의 팀 내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지난 시즌 잦은 실수로 뮌헨 우승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김민재다.

전반기 활약은 준수했으나 후반기 들어 중요한 경기에서 실점으로 이어진 실책성 플레이를 거듭했고 급기야는 주전 경쟁에서도 밀렸다.

뮌헨에서 불안한 첫 시즌을 보낸 김민재를 두고 여름엔 그가 이탈리아 세리에A로 돌아갈 거라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등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여러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초반에도 다소 부진했다. 볼프스부르크와의 리그 개막전(뮌헨 3-2 승리)에서 패스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내줬다.

이 경기 뒤 김민재는 센터백 파트너인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뱅상 콤파니 감독의 지도 아래 특별 훈련을 받기도 했다. 콤파니 감독은 세계적인 센터백 출신의 젊은 지도자다.

이후 김민재의 경기력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는데도 독일 언론은 괜히 트집 잡곤 했다.

특히 선제적으로 상대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김민재 특유의 '적극적인 수비 방식'에 현지 매체들은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뮌헨 소식을 주로 다루는 바바리안포털은 "김민재의 위치 선정은 여전히 문제다. 몇 번의 실수가 아닌 고약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유력지 빌트는 뮌헨이 바르셀로나(스페인)에 1-4로 패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와 관



련해 "김민재는 엉망이었다. 팀이 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흔들림 없이 매 경기 제몫을 다했고, 27일(한국시간) '프랑스 거함' 파리 생제르맹(PSG)과의 UCL 리그 페이즈 5차전 홈 경기에서는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전반 38분 요주아 키미히가 골대 쪽으로 바짝 붙여 올린 코너킥을 골키퍼가 제대로 편칭하지 못하자 이를 문전에서 머리로 받아 득점했다.

김민재의 집중력이 빛난 이 골로 뮌헨은 1-0 승리를 거뒀고 공식전 7경기 무실점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 득점은 김민재의 생애 첫 UCL 득점이기도 하다.

김민재는 본업인 수비에서도 완벽

에 가까웠다.

한 차례 상대 슈팅을 블록해냈고, 가로채기 2회, 견어내기 7

회를 기록했다.

후반 5분에는 최

전방까지 달려 나온 상대 측면 수비수 누누 멘데스

에게 향하는 패스를 뒷발로 끊어내는 등 뛰어난 위치선정 능력을 보여줬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김민재에게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8.3의 평점을 매겼다.

UEFA로부터 경기 최우수선수(Player of the Match)로 선정됐음은 물론이다.

김민재를 향해 '역짜 비판'을 하던 빌트마저도 '뮌헨이 김민재의 머리와 팬들의 분노로 승리했다'며 이날만큼은 찬사를 보냈다.

콤파니 감독은 경기 뒤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그는 "공격수들은 우리 뮌헨 훈련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 스트라이커들이 즐겁지 않다면, 수비수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기력에는 늘 자신감과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 2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5차전 파리 생제르맹과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AFP=연합뉴스

톰프슨·유소연·엘리 유잉 등 메이저 챔피언 5명 필드 떠나

26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에 오른 지노 티피쿰(태국)만큼은 아니었지만, 팬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선수는 렉시 톰프슨(미국) 사진이었다.

5월 돌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더는 전 시즌을 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톰프슨은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마치고 눈물로 정들었던 LPGA 투어 무대에 작별을 고했다.

최종 라운드를 10번 홀에서 시작할 탓에 18번 홀이 아니라 9번 홀에서 팬들과 작별한 아쉬움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톰프슨뿐 아니라 투어에서 3승을 올린 엘리 유잉과 2승을 따냈던 마리나 알렉스(이상 미국)도 이날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필드를 떠났다.

시즌 최종전에서 은퇴한 선수는 3명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LPGA 투어에서 은퇴 선수수가 많다.

톰프슨만큼 화려한 현역 생활을 누

"아듀! LPGA" 떠나는 여왕들



렸던 전 세계랭킹 1위 유소연도 올해 LPGA 투어에서 은퇴했다.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6번 우승했고 19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유소연은 4월 세브론 챔피언십을 마치고 은퇴했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2017년 유소연이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이고, 당시 우승 때 톰프슨이 4번타를 받은 덕분에 역전 우승을 해서 큰 화제가 됐다.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1승을 포함해 7승을 올린 김인경도 지난 8월 AIG 여자오픈을 은퇴 무대로 삼았다.

김인경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며 "또 골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은퇴 소감을 남겼다.

메이저 2승을 비롯해 8승을 거둔 브리트리 린시킴도 올해 은퇴할 주요 선수로 꼽힌다. 그는 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앞서 열린 안나카 드리븐을 끝으로 은퇴했다.

메이저 1승과 통산 7승의 앤젤라 스탠퍼드(미국) 역시 이번 시즌에 LPGA 투어를 떠났다.

다저스 월드시리즈 배당금 649억 역대 최고

2024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역대 최고 배당금을 받는다.

MLB닷컴은 27일(한국시간) 2024 MLB 포스트시즌 배당금은 총 1억2910만 달러(1804억 원)로 기존 최고액이었던 지난해 1억780만 달러(1506억 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포스트시즌 배당금은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WC) 결정전 1~2차전, 디비전시리즈 1~3차전, 챔피언십시리즈 1~4차전, 월드시리즈 1~4차전 입장 수입의 60%를 합산해 계산한다.

월드시리즈 우승 팀은 전체 배당금의 36%를, 월드시리즈에서 진 팀은 24%를 각각 가져간다. 챔피언십시리즈 패배 팀은 12%를 받고 디비전시리즈 패배 팀엔 3.3%,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다저스는 1인당 47만 달러를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WC 결정전 패배 팀엔 0.8%가 돌아간다. 다저스는 4647만 달러(649억 원), 1인당 47만7441달러(6억7000만 원)를 받는다. 다저스는 역대 최고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1인당 배당금은 지난해 우승팀인 텍사스 레인저스(50만6263달러)보다 적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